

무안군, 촘촘한 인구정책...“군민 10만 시대 연다”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4천540억 투입
출산·양육·교육 등 생애 맞춤형 지원 강화
‘무안시’ 전환 추진...서남권 중심지 ‘도약’

무안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10만 무안’ 실현과 지방소멸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의 인구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2025년 5월 말 기준 인구가 9만3천800명을 기록해 연초 대비 인구가 1천122명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천301명 늘어 인구 증가율 2.6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전국 28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13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무안군은 ‘10만 인구 조기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강화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총 4천540억원을 투입해 11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청년·일자리 중심 경쟁력 강화

▲가족친화 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위기 대응 기반 강화 등 4개 중점 분야로 나뉜다.
무안군은 출산부터 양육, 교육까지 아우르는 지원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출생축하금으로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출생기본수당으로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4천32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첫만남 이용권, 무상급식, 교복비, 각종 보육·교육비 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무안군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주말·공휴일에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업 지원도 강화됐다. 화합물반도체센터 구축,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추진 등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안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청년센터 2곳을

운영하며 청년 도전지원사업, 취업합격 케키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2개 고속도로, 개통 예정 KTX, 전남도청과 국립대 등 우수한 교통·교육 인프라와 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인구 유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무안시’ 전환도 추진해 서남권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모든 세대가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10만 무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성호 기자

‘완도 청해진’ 유적 가치 장보고 대사 위업 재조명

26-28일 완도생활문화센터서 학술회의
완도군은 23일 “청해진 유적의 국가유산 지정 40주년을 맞아 26-28일 3일간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2025 장보고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세기의 장보고와 21세기의 장보고’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이었던 장보고 대사의 위업과 정신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완도군이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와 도서문화연구원이 주관하며, 장보고 관련 국내·외 전문가, 연구자, 관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완도 청해진 유적은 장보고 대사가 9세기 중반 세운 해상 왕국의 거점이자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다.
지난 1984년 9월1일 국가유산(사적 제308호)

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학술·문화적 가치가 꾸준히 조명받아 왔다.
26일에는 학술회의 개회식과 함께 장보고의 역사적 역할과 청해진 유적의 현대적 가치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27일에는 ‘동아시아 해양 박물관과 장보고’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장보고 포럼(가칭)’ 결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념행사에는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공연,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일본 템플대 교수의 기념강연, 기념 식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28일에는 해양치유 체험과 참가자들이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역사적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해진 유적지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한국 해양 역사와 세계 교류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본향인 완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 문화 교류의 중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양파 기계 수확...시간·예산 대폭 절감

고령화 인력 부족·경영 부담 감소
신안군은 “최근 지도읍에서 관계기관 및 농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기계 수확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연사회는 최근 인력 수급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양파 줄기 절단기, 굴취기, 수집기 등 3종의 기계 장비를 활용한 시연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신안군은 2023년부터 3년간 총 38억원의 예산

을 투입해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양파 생산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표준 재배 모델을 제시하며, 육묘부터 수확까지 단계적으로 기계화율을 높이고 있다.
양파의 작업시간은 종자 파종부터 수확 후 수집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할 경우 기존 재배 방식에 비해 약 78%, 생산 비용은 약 51% 절감이 가능하다.
신안군은 이번 연사회를 계기로 양파 기계화 기술의 안정적인 보급과 현장 적용을 확대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안=양훈기 기자

함평군, 온라인 판로 확대 본격 지원

크라우드 펀딩·유통중개 등 2개 분야
함평군이 지역 생산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스트리트캡처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영농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크라우드펀딩’, ‘유통 중개’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된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판매 전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관심 있는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투자금(선주문)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판매 업체 입장에서는 홍보와 자금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는 사업 방식 중 하나다.
‘유통 중개 지원사업’은 지역 식품 생산자(영농인, 식품업체 등)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벤더사)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 관련 상담 ▲플랫폼 내 제품 등록 등 연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함평소식)·타기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



목포시는 최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대강당에서 ‘서남권 미래 발전과 통합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 서남권 미래 발전 통합 전략 토론회 ‘성료’

지속 가능 서남권의 종합 발전 전략 제시
목포시는 “최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대강당에서 ‘서남권 미래 발전과 통합 전략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사)목포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 및 신안통합대책위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서남권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자치단체 간 통합 전략과 지역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곽행구 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서남권의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서남권이 보유한 해양·도서 자원, 신재생에너지, 농수산업, 관광·치유산업 등 다양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병록 국립목포대학교 교수가 무안반도 행정통합의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목포-무안-신안의 행정통합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가치론적 관점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 전략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국정철학은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정부의 단순한 승인자적 입장에 머물기보다는 지역 간 갈등 조정

과 제도적 지원 등 해결자로서의 실용적 개입과 조정 역할을 요구한다”며 “최근 목포-무안 간 버스노선 갈등에서도 확인되었듯 한 생활권 두 행정구역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된 광역 BRT 교통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항공·수산 등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은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제시했다.
고석규 통추위 위원장은 “협력은 최고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서남권 시·군의 상생과제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향후 지역 통합 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주민·전문가·정치권 간의 공론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 출신 손솔 국회의원, 고향 방문

재생에너지 협력·지역 현안 등 논의
장 군수 “고향 발전 힘 보태달라” 요청

또한 장 군수는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원과 에너지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해 에너지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영광군정의 핵심 과제”라며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백수해안 노을길 관광명소화 ▲법성진성 국가 사적 지정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주요 과제들이 거론되며 국회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손솔 의원은 “영광에서 나고 자라 고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향 일이라면 내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지역 출



영광 출신 손솔(왼쪽) 국회의원이 최근 영광군청을 방문한 가운데 장세일 군수와 고향 발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영광군 제공>

신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공조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영광군은 손 의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문화관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산 노지 블루베리, 본격 수확 돌입

8곳 농가서 2.5ha재배



강진군에서 재배되는 노지 블루베리가 본격 수확철에 접어들었다.
23일 강진군·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대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블루베리는 비타민 A 함량이 사과와 5배, 안토시아닌 함량은 딸기의 4배 이상 높아 노화 억제, 항산화효과, 혈관질환억제, 시력보호효과 등이 뛰어난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손꼽힌다.
강진군 블루베리 재배는 약 16년전 틈새 소득 작목으로 도입한 후 지금까지 8곳 농가에서 2.5ha면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농가들은 강진블루베리연구회를 조직해 재배정보를 교환하고 전국의 선도농가를 찾아 기술을 익혀왔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실증포를 조성하고 8가지 품종을 심어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적응성과 고품질 품종 선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병영면에서 ‘다산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해 현재 수확(사진)이 한창인 김금주 대표는 “블루베리는 먹기 좋고 맛있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이라 판매로 문제가 없고 인공산토에 재배하다보니 토질도 가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0.3ha면적의 농장에는 5가지 품종을 심어 수확하고 있다. 올해 약 1.5t 정도의 수확량을 내다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중 절반 이상을 개인 직거래 판매로 출하하고 나머지 물량은 장흥에 있는 선별장으로 출하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